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평가 및 합의

- 국제 여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이 영 학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박사과정

< 목 차 >

- I. 서론
- II. 소프트파워 개념, 평가와 중국의 소프트파워
- III. BBC 여론조사를 통한 중국 소프트파워 평가 및 합의
- IV. PEW 여론조사를 통한 중국 소프트파워 평가 및 합의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 중국(china), 중국 소프트파워(Chinese Soft Power), 국제 여론조사(international public opinion poll), 중국 영향력(Chinese influence), 중국 국가 이미지(Chinese national image)

국 문 요 약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평화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지역차원의 강대국을 넘어서 ‘글로벌 파워’ 로의 발전과 같은 강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우호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강대국화의 국가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수단이 바로 ‘소프트파워’ 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위해서,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대외전략 목표, 즉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표와 중국의 소프트파워 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제 반응의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대외전략 목표는 ‘중국위협론’ 과 같은 반(反)중국 여론을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지는 대국’ 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로 보고, 이러한 목표와 국제사회의 실제 반응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국의 영향력 및 국가 이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여론조사를 평가방법으로 활용한다.

중국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조사 결과, ‘중국위협론’ 은 거의 소멸되었고 ‘중국기회론’ 이 개발도상국이나 저발전 국가들에서 주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중국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중국책임론’ 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국제사회 지역별로 비교적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3.14’ 티베트 사건과 서구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 등으로 비교적 커다란 타격을 입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국가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 강대국이나 국제기구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여전히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영향력과 국가 이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건설 노력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물임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소프트파워 건설 노력은 일정 정도 성과를 얻기는 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중국 소프트파워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중국책임론’ 과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 및 제반 사회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국제사회, 특히 서구 국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 서론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종합국력의 상승에 따른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의 제고를 경험하면서 변화된 자국의 능력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국가 발전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에 더하여 ‘평화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지역차원의 강대국을 넘어서 ‘글로벌 파워’로의 발전과 같은 강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강대국화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China Threat Theory)’과 같은 반(反)중국 여론을 잠재우고, ‘중국기회론’(China Opportunity Theory)과 같은 친(親)중국 분위기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우호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강대국화의 국가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수단이 바로 ‘소프트파워(Soft Power)’이다.¹⁾

일반적으로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크게 제고되었다고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소프트파워 개념 자체의 모호성에서 오는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묘사적 평가가 많은데 반해, 정량화 평가와 논리분석적 평가는 많지 않다.²⁾

본 논문은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위해서, 소프트파워 개념에 대한 정의에 근거해서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표)와 중국의 소프트파워 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의 일치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

1)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은 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된 후,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 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가 발표한 정치보고 문건에 삽입됨으로써 국가 최고 정책결정 라인의 승인을 얻은 공식 슬로건이 되었다(胡錦濤 2007; 이영학 2009, 141, 147).

2)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중국 소프트파워 자원 혹은 영역별 묘사적 평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 문화, 발전모델 및 외교정책 등에서 중국 소프트파워는 크게 제고되었으나 중국 정치개혁과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로 인해 제약 받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다.

한다. 또한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대외전략 목표를 ‘중국위협론’과 같은 반(反)중국 여론을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지는 대국(Responsible Power)’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로 본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러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운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즉 동의하고 실제로 중국이 원하는 목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에 대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제 여론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운용에 대하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표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을 두고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한 질문을 함으로써, 여론조사가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중국 소프트파워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함의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II. 소프트파워 개념, 평가와 중국의 소프트파워

1. 소프트파워 개념, 평가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진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원장 조셉 나이(Joseph S. Nye, Jr.) 교수가 1990년에 제기한 개념으로서,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오고 있다. 나이(Nye 2004) 교수에 의하면, 소프트파워란 강압(coercion)이나 보상(payment)이 아닌 매력(attraction)을 통해서, 타국의 선호(preference)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는 주로 세가지 자원(resources)을 갖는다. 첫째, 타국에 대해서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문화와 둘째, 국내외에서 실현 가능한 정치적 가치관. 셋째, 합법성과 도덕적 위신을 갖는 외교정책이 그것이다.

나이가 정의한 소프트파워 개념은 결국 소프트파워 자원, 소프트파워 행위(자원의 운용)와 소프트파워 역할(소프트파워 운용의 결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소프트파워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모호한 측면이 많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평가하기 위해서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중심으로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후, 소프트파워 개념 및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의 핵심은 ‘매력(attraction)’에 있지만, 소프트파워 역시 ‘파워’인만큼 타국의 실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결과, 즉 영향력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나이 또한 영향력을 소프트파워 개념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왕홍잉(Wang, Hongying)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는 ‘매력’과 ‘국제관계에서 타국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영향력)’간에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Wang and Lu 2008; 鄭永年·張馳 2007). 즉 한 국가가 소프트파워를 운용해서 타국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타국이 반

드시 내 뜻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천위강(陳玉剛 2007)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매력이라는 가치의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구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파워가 제시하는 매력은 스스로 역할을 발휘하는 과정으로서, 먼저 상대방(타국)의 인정과 동의를 획득한 후, 상대방(타국)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포함한다. 첫 번째 과정(상대방의 인정과 동의 획득)만으로도 매력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두 번째 과정(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프트파워의 역할은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소프트파워 운용의 결과로서, 타국이 매력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대상국은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프트파워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라고 말하기 어렵다. 두 번째, 첫 번째 단계인 매력을 느끼는 것에 대한 후속 반응으로서, 매력을 느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실제로 행동한다. 그러나 어떤 대상국은 비록 매력을 느껴서 인정하고 동의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소프트파워는 제한된 역할만 할 수 있다. 세 번째, 소프트파워 역할의 성과로서, 타국이 매력을 느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동한 결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성공할 경우에 소프트파워는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파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프트파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와 실제로 타국이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결과인 소프트파워 역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소프트파워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내가 소프트파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즉 ‘소프트파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가?’하는 것이다(Joshua 2007, 129-130).

다음에서는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의 소프트파워 및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찰한 후, 중국이 원하는 목표와 타국이 ‘매력을 느껴서 실제로 행동’한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2. 중국의 소프트파워 및 평가방법

중국의 소프트파워란, ‘중국이 자신의 소프트파워 자원 및 그 운용을 통해서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국제사회(타국)가 받아들이기 원해서 실제로 행동하도록 하는 매력, 혹은 매력적 영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은 소프트파워의 제고를 위해서 국제경제정치 무대에서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문화적 자원을 운용함으로써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로 대표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국가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 모델로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중국의 강대국화 대외전략 목표 ‘평화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지역차원의 강대국을 넘어서 ‘글로벌 파워’로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대외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력, 의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식(인정, 동의)이 필요하다(정재호 2006, 19). 현재 중국은 이미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은 평화적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평화발전의 의지가 국제사회의 인정 및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소프트파워의 제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국이 대외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의 제고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이 소프트파워 전략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일차적 목표는 중국의 평화발전의 의지가 국제사회의 인정 및 동의를 얻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중국위협론’ 등 반(反)중국 여론을 불식시키고 ‘책임지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의 목표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영향력 및 중국(이미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타국)가 중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지’ 여부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에서 분석한 소프트파워 역할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 및 중국(이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조사한 국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원하는 목표와 국제사회의 대(對)중국 인식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중국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중국위협론’ 불식 및 국가이미지 제고 이외에도 경제원조를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나 국제경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전략적 목표 또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타국)가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두 번째 단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를 진행하고, 후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포함한 평가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소프트파워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소프트파워 개념은 탄성(彈性)이 매우 커서 측정하거나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제사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국의 소프트파워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통계학자들의 방법론처럼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거의 불가능하다. 소프트파워는 마치 ‘감정’처럼, 단지 느낄 수 있거나 묘사할 수 있을 뿐, 논리적 분석을 전개하기 어렵다.”(蘇長和 2007) 또 다른 학자는 “소프트파워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구당 정보 기술의 이용 정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정도, 유명 브랜드의 수량 등 간접적 기준을 사용하지만 이는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하게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측정하기 어렵다.”(Wang and Lu 2008, 446)

본 논문은 여론조사를 소프트파워 평가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여론조사는 ‘시효성(時效性)’이 있어서, 당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의해서 여론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진상을 왜곡하기 쉽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한 차례 또 한

차례 동일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묻는다면, 여론조사의 ‘시효성’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바대로 중국 소프트파워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효성’을 극복한 국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경향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Ⅲ. BBC 여론조사를 통한 중국 소프트파워 평가 및 함의

영국 BBC 국제방송은 세계적 여론조사 회사인 글로브스캔(Globescan)에 의뢰해서 2005년부터 20여 국가의 국민들을 선정, 국제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몇몇 주요 국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 7월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20여 개국)의 인식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평가

총 4차례에 걸친 국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하였다.

<표 1> BBC 국제 여론조사 :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긍정 : 부정, 단위 : %)

조사 발표 시기		2005년3월	2007년3월	2009년2월	2010년4월	
조사 방법	조사 기간	2004년12월	2006년11월~ 2007년1월	2008년11월~ 2009년2월	2009년11월~ 2010년2월	
	조사대상 국가* (조사대상 인수)	22개국 (22,900여명)	26개국 (28,300여명)	20개국 (13,500여명)	27개국 (29,900여명)	
지역별 조사 결과	미국·유럽 선진국 (동유럽포함, 러시아 제외)	미국	39:46	34:44	32:52	29:51
		캐나다	49:39	46:42	31:58	35:41
		영국	46:34	49:34	39:42	40:38
		프랑스	49:32	32:59	22:70	24:64
		독일	34:47	30:53	11:69	20:71
		이탈리아	42:29	25:58	21:68	14:72
		스페인	37:33		29:54	22:54
		포르투갈		22:58		25:54
		폴란드	26:33	22:28		
		헝가리		11:39		
	그리스		44:26			

지역별 조사 결과	동 남 아	필리핀	70:23	44:20	39:52	55:31
		인도네시아	68:20	62:27	43:37	43:29
		태국				45:44
	아 프 리 카	나이지리아		66:20	72:15	73:17
		이집트		38:16	62:11	64:21
		남아공	62:25			
		케냐		70:10		73:15
		가나			75:8	63:14
	중 남 미	멕시코	33:26	31:28	34:26	32:26
		칠레	56:15	62:16	60:17	55:22
		브라질	53:32	46:32		52:35
		아르헨티나	43:26	32:23		
		중앙아메리카			62:18	57:28
	중 동	레바논	74:9	66:13		
		UAE		68:8		
		아제르바이잔				39:36
	기 타 국 가	일본	22:25		8:59	18:38
		한국	49:47	32:48		34:61
		호주	56:28	43:39	47:37	36:43
		인도	66:20	35:22	30:24	30:38
		파키스탄				56:7
		터키	37:33	31:39	18:64	21:47
		러시아	42:27	38:31	45:18	42:31
	중국 전체 평균		48:30	42:32	39:40	41:38
미국 전체 평균		38:47	30:51	40:43	46:34	

* 중국을 제외한 국가 수

출처 : BBC World Service Poll, 2005, 2007, 2009, 201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역별 구분에 따라 중국 영향력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평가

2005년의 조사 결과, 총 8개국 중 5개국에서 중국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국가보다 많았다. 또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국가들 미국, 독일, 폴란드 에서도 긍정, 부정의 평가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미국, 폴란드: 7 / 독일: 13). 미국, 유럽 국가의 긍정, 부정 전체 평균 비율도 40:37로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그러나 2007년의 조사 결과에서는 총 10개국 중 7개국이 중국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캐나다, 영국, 그리스 3개국만 중국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10개국의 긍정, 부정 전체 평균 비율은 32:44로서 부정 비율이 긍정 비율보다 높았다. 2009년의 조사 결과, 중국 영향력에 대한 부정 비율이 더욱 늘어났고, 긍정 비율은 더욱 줄어들었다. 총 7개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도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프랑스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70%에 달했고, 독일은 69%, 이탈리아 역시 68%에 달했다. 이전 두 차례 조사에서 중국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캐나다와 영국 역시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고, 7개국의 긍정, 부정 전체 평균 비율은 26:59였다. 2010년 조사에서 이들 국가들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05년의 수준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동남아 지역의 중국 영향력 평가

2005년과 2007년의 조사 결과에서는, 중국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2009년의 결과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반대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였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더 높게 나왔다. 중국 영향력에 대한 필리핀의 긍정적 평가는 2005년 70%에서 2007년 44%로 하락한 뒤, 2009년 39%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적 평가는 2005년 23%에서 2009년 52%까지 상승했다. 2010년에 들어서 점차 긍정적 평가를 회복하고 있지만, 2005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영향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긍정, 부정 평가 비율은 2005년 68:20, 2007년 62:27, 2009년 43:37, 2010년 43:29로서, 필리핀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의 중국 영향력 평가

총 4차례 조사를 실시한 아프리카의 5개국, 중남미 5개국(지역)과 중동 3개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대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중동의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기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부정적 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긍정, 부정 평가 차이가 40% 50%에 이른다).

(4) 기타 국가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평가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등은 중국과 비교적 근거리에서 위치한 아태지역의 대국이다. 5년여의 시간 동안, 중국 영향력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는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았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일본, 인도, 호주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부정적 평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5) 종합평가

위의 조사 결과로부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지역별로 비교적 뚜렷한 차이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변화가 크지 않아서 안정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중국기회론’이 매우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과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서구 국가들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2005년까지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6년 이후, 특히 최근에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는 21세기에 들어와서 2005년까지, 일찍이 1990년대 유행했던 ‘중국위협론’이 거의 소멸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다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지는데, 이는 ‘중국위협론’의 재부상이라기 보다는 ‘중국책임론(China Responsibility Theory)’과 같은 새로운 대(對)중국 여론이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왜냐하면 2005년 미국이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책임지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규정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중국책임론’이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가까워짐에 따라 서구 국가와 비정부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수단 다르푸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하기를 요구하였고 중국 국내에서 ‘3.14’ 티베트 사건 발생 이후, 티베트 시위대가 중국 정부에 유혈 진압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다르푸르 문제와 티베트 문제 등을 중국의 2008년 올림픽 개최와 연계시켜서 중국을 압박하였다. 또한 서구 국가들은 중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의 자원 및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에너지 약탈론’, ‘신식민주의론(Neo colonialism)’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2008년 이전, 중국 영향력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압도적인 긍정적 평가는 일찍이 1990년대 중반에 이 지역에서 유행했던 ‘중국위협론’이 거의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기회론’이 ‘중국위협론’을 대체하여 대(對)중국 여론의 주류가 된 것이다. 그러나 2009년의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갈등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영토 분쟁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남사군도(Spratlys) 등 남중국해 여러 도서 지역의 영토와 자원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2년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행동선언문인 <남중국해에서의 각국 행동선언>에 합의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도서를 모두 중국령으로 명기하고, 남사군도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김예경 2008, 331; 『연합뉴스』, 2010년 7월6일), 최근 동남아 국가들 역시 남중국해의 도서 지역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³⁾하면서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09년 2월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글로브스캔의 수석 조사관 밀러(Doug Miller)는 “중국이 매력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국제사회의 대중국 우려를 불식 시키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⁴⁾

2. 합의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다. 즉 ‘중국위협론’은 거의 소멸되었고 ‘중국기회론’이 개발도상국 또는 저발전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중국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중국책임론’이 유행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고속 발전은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성장한 후에 증대된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기존 국제체계 주도국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소위 ‘중국위협론’은 20세기 90년대 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제기된 이후,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 남사군도 분쟁 등 영토분쟁과 대만해협 위기,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의 증강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Roy 1996, 758-760; 金駿遠 2008, 54). ‘중국위협론’의 확산은 ‘평화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지는 대국’이 되려는 중국에게는 커다란 타격이다. 중국은 소트프파워 전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反)중국 세력과 여론에 대응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반(反)중국 연대와 같은 현실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국기회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위 ‘중국기회론’은 중국의 발전, 특히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아닌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발전의 엔진으로서 중국 경제가 발전할수록 중국이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갈수록 많아지고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그 과실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陳顯泗 2006; 李正男 2007).

서구 선진국들은 최근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연성 억지’(軟遏制)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중국 등 신흥대국을 국제체제 안으로 끌어들이어서 체제 안에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책임론’이다. ‘중국책임론’은 ‘중국위협론’과 달리 중국의 발전을 인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다(郭樹勇 2008; 俞新天 2008, 291).

‘중국책임론’의 대표적 관점이 2005년 미국 국무부 차관인 줄릭(Zoellick)이 행한 ‘이익상관자’ 연설로서(Zoellick 2005), 그 후로 ‘중국책임론’이 유행하게 되었다. 중국이 국제체제에서 미국의 이익상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전략적 책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에 도전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둘째, 외교적 책임. 미국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을 미국과 협력해서 해결한다. 셋째, 경제적 책임. 대미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넷째, 군사적 책임. 군사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적 책임. 종교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체제 개혁을 앞당겨야 한다(呂曉莉 2009; 袁鵬 2005).

이외에도 유럽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책임론’은 중국이 WTO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상품, 금융, 서비스 등의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하고 외국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중국 위안화 환율의 변동환율제 채택과 덤핑 상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무역 측면 이외에도 유럽은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활동을 ‘신식민주의’로 명명하면서, 현지 불량 정권(rouge state)의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⁹⁾

IV. PEW 여론조사를 통한 중국 소프트파워 평가 및 함의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진행한 글로벌 여론조사프로젝트(Pew Global Attitudes Project)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국가 이미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겠다. 첫째, 중국 국가 이미지의 호감도(flavorability) 변화로서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매해 한 차례씩 15개국에서 많을 경우 4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의 이미지, 호감도에 대한 평가. 둘째, 중국 국가 이미지와 기타 주요 국가 또는 국제기구 이미지와의 비교 조사로서 2005년,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중국을 포함하는 주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비교 대상으로 진행된 호감도 국제여론 조사이다.

1. 중국 국가 이미지의 호감도 변화

(1) 평가

퓨여론조사 프로젝트(Pew Global Attitudes Project)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이미지, 호감도에 대한 국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 Pew Global Attitudes Project의 중국 국가 이미지에 대한 국제 여론조사⁹⁾(호감도, %)

조사 시기		2002년 (11월)	2005년 (봄)	2006년 (봄)	2007년 (봄)	2008년 (봄)	2009년 (봄)	2010년 (봄)
미국· 유럽	미국		43	52	42	39	50	49
	캐나다		58		52		53	
선진국(동 유럽 포함, 러시아 제외)	영국		65	65	49	47	52	46
	프랑스		58	60	47	28	41	41
	독일		46	57	34	26	29	30
	스페인		57	45	39	31	40	47
	폴란드		37		39	33	43	46
동남아	인도네시아	68	73	62	65	58	59	58
아 프 리 카	이집트			63	65	59	52	52
	나이지리아			59	75	79	85	76
	케냐				81		73	86
	모로코		71		26			
	탄자니아				70	71		
	남아공				44	37		
중남미	멕시코				44	38	39	39

중남미	브라질				50	47	50	52
	아르헨티나				32	34	42	45
중동	레바논		66		46	50	53	56
	요르단		43	49	46	44	50	53
	이스라엘				45		56	
	팔레스타인				46		43	
기타 국가	일본	55		27	29	14	26	26
	한국	66			52	48	41	38
	인도		56	47	46	46	46	34
	파키스탄		79	69	79	76	84	85
	터키		40	33	25	24	16	20
	러시아	71	60	63	60	60	58	60
중국호감도 전체평균			57	54	49	44	49	49
호감도 50%이상 국가		4/4	10/15	9/14	10/27	7/22	13/24	9/21
호감도가 비호감도 보다 큰 국가		4/4	14/15	12/14	16/27	11/22	15/24	15/21

출처 : Pew Research Center,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국 이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중국 영향력에 대한 평가처럼 뚜렷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역별 구분에 따라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의 경향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6년에 52%로 정점에 달한 후, 2007년 42%로 떨어지더니 2008년 39%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 다시 50%까지 상승한 후, 2010년에 49%를 유지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 역시 2005년~2006년까지 최고점에 달한 후, 2007년~2008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09년~2010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영국이고,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이는 국가는 독일로 나타났다. 독일의 대중국 호감, 비호감의 차이는 26%~5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호감도가 비호감도 보다 큰 국가를 기준으로 2005년~2006년 각각 7/7과 5/5로써, 중국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7년~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3/7과 1/6로써, 중국 이미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2009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서 4/7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4/6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②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

동남아 지역에서는 오직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평가로 간주하기 어렵고,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남아공과 2007년 모로코를 제외하고는 어느 시기, 어떤 나라에서도 호감도가 50%이하로 낮게 나온 적이 없어서, 이들 지역에서 중국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와 케냐에서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85%, 81%에 이르기도 하였다.

③ 중남미 지역에서의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

브라질은 대략 50% 수준의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대략 30%~40% 수준으로써, 중남미 지역에서는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비록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화가 크지 않아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중동 지역에서의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략 40%~50%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이다.

⑤ 기타 국가에서의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

러시아와 파키스탄에서의 평가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파키스탄에서는 호감도가 85%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한국, 인도에서의 중국 이미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⑥ 종합평가

중국 국가이미지는 전체 평균 점수와 호감도가 비호감도 보다 높게 나타난 국가수의 두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2005년에 57%와 14/15, 2006년에 54%와 12/14로써,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주류 사회의 대중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고착되어 왔고, 여론 조사 대상 지역과 국가가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의 수가 많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으로서 중국이 소프트파워 건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국의 매력 이 제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2008년,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급격히 하락하는데 2007년에 49%와 16/27, 2008년에 44%와 11/22로써 호감도가 비호감도 보다 높게 나타난 국가 수 비율 기준으로 볼 때,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중국 국내외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래에 들어와서 ‘중국책임론’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는 수단 다르푸르 문제와 중국 내 티베트 문제 그리고 자원, 에너지 문제 등에서 중국이 더욱 중요하고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식품 안전 및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해서 중국 내 생산품(made in China)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 국가 이미지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러

나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인해서 2009년을 전환점으로 중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점차 회복되어서, 2009년에 49%와 15/24, 2010년에 49%와 15/21에 이르고 있다.

(2) 합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정상화되었고, 중국은 소프트파워 건설을 통해서 자국의 ‘책임지는 대국’⁷⁾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래로 티베트 ‘3.14’ 사건,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등을 둘러싸고 서구에서는 중국 관련 부정적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⁸⁾

21세기에 들어서서 서구 매스컴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정치 의제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부정적 평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⁹⁾ 뿐만 아니라 상품의 브랜드 개념이 국가 이미지에도 도입되면서 국가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것이 소프트파워 강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지만, 중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뒤쳐져 있다. 2007년 2월, 라모(Joshua Ramo)는 영국 외교정책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하기를, “대다수 외국인이 볼 때, 중국 생산품의 기술 수준이 낮고, 품질은 떨어진다……만약 소비자나 기업에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도 ‘맹목적 모방’일 것이다”(龔鐵鷹 2008, 223-225 재인용). 또한 최근에 전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난 중국산 제품 불매 슬로건은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龐中英 2008, 88).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손상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우선, 2008년 5월 12일 쓰촨성 원촨(四川省汶川縣) 지역에서 8만 여명의 인명 손실을 입은 대지진이 발생하자, 중국은 신속한 재난구조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서구 언론 매체들의 부정적 보도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어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張幼文·黃仁偉 2009, 214-215). 또한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國際在線』, 2009年11月19日), 티베트 ‘3.14’ 사건은 민족, 인권 문제가 아닌 분리 독립 세력의 책동에 의한 ‘국가 통일’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¹⁰⁾ 중국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후,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다.¹¹⁾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자국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450억 위안을 투자해서 주요 언론사인 CCTV, 신화사, 인민일보 해외판의 선전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고(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14, 2009), 또한 ‘중국판 CNN’으로 불리는 관영 신화통신의 새TV 방송인 ‘중국인테네셔널 TV’(CITV)를 설립하기로 하였다(『연합뉴스』, 2009년10월 29일, 12월 16일).

2. 중국 국가 이미지와 기타 주요 국가(국제기구) 이미지와의 비교 조사

퓨어론조사 프로젝트(Pew Global Attitudes Project)는 2005년,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중국을 포함하는 주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비교 대상으로, 호감도 국제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는 15~16개국의 국민들이 5개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에 대해서 호감도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비교 대상을 미국, 러시아, 중국, UN과 유럽연합의 5개 주요국 및 국제기구로 변경해서 조사하였다.

<표 3>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중국 국가 이미지의 국제비교 여론조사 (호감도/순위)

조사 발표 시기		2005년	2006년	2009년	
조사 방법	국가 이미지 비교대상 국가 및 국제기구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중국, UN, 유럽연합	
	여론조사 대상 국가수	16개국	15개국	14개국	
	조사 시기	2005년4월~5월	2006년3월~5월	2009년5월~6월	
지역 별 조사 결과	미국·유럽 선진국(동유럽 포함, 러시아 제외)	미국	43%, 5위	52%, 공동3위	
		캐나다	58%, 5위		53%, 4위
		영국	65%, 4위	65%, 3위	52%, 3위
		프랑스	58%, 5위	60%, 4위	41%, 4위
		독일	46%, 4위	57%, 4위	29%, 5위
		스페인	57%, 4위	45%, 4위	40%, 4위
		네덜란드	56%, 4위		
		폴란드	36%, 5위		43%, 4위
	동남아	인도네시아	73%, 2위	62%, 2위	
	아프리카	이집트		63%, 공동1위	52%, 2위
		나이지리아		59%, 공동3위	
	중남미	멕시코			39%, 4위
	중동	레바논	66%, 4위		53%, 5위
		요르단	43%, 3위	49%, 1위	50%, 1위
		이스라엘			56%, 공동2위
		팔레스타인			43%, 1위
	기타 국가	일본		28%, 5위	26%, 4위
		러시아	60%, 4위	63%, 4위	
		인도	56%, 2위	47%, 공동3위	46%, 3위
		파키스탄	79%, 1위	69%, 1위	
터키		40%, 3위	33%, 3위		
중국 전체 평균		56%, 4위	54%, 4위	45%, 4위	
전체 평균 점수 기준의 호감도 우선 순위		독일(67%) 프랑스(63.2%) 일본(62.8%) 중국(56%) 미국(44%)	독일(61%) 일본(60%) 프랑스(54.2%) 중국(53.7%) 미국(39%)	미국(57%) UN(56%) 유럽연합(55%) 중국(45%) 러시아(40%)	
호감도 50%이상 국가수 기준의 호감도 우선 순위		일본(13/16) 독일, 프랑스(12/15) 중국(10/15) 미국(5/15)	독일, 일본, 프랑스(10/14) 중국(9/14) 미국(4/14)	미국(11/14) UN, 유럽연합(9/14) 중국(6/14) 러시아(3/14)	

출처 : Pew Research Center,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2005, 2006, 2009.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다른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의 이미지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의 몇몇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중국 국가 이미지에 비교대상 5개국(국제기구) 중 4등을 주었다. 전체 평균점수와 호감도가 50%이상 이상인 국가수의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역시 4등이었다. 중국과 함께 비교 대상이 된 국가나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이거나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기구이고, 또 조사대상국 중 중국에 우호적인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할 지라도 이와 같은 중국 국가 이미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책임지는 대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중국에게는 매우 커다란 과제를 안겨준 것이라 하겠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2005년과 2006년의 조사에서 국가 이미지가 가장 나빠던 미국(5개국 중 5위)이 2009년의 조사에서는 다른 비교 대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점이다. 이는 2009년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등장과 기존의 오만하고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의 수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곧 국제사회의 강대국이 잘못이나 실책을 인정하고 개선해나간다면,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나 명예를 회복 또는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종합해보면 중국 국가 이미지를 시계열적(중국 국가 이미지의 호감도 변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간 비교의 평가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주요 선진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시계열적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나빠지면서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하다. 또한 국제 비교에서도 5개국 중 4위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의 ‘책임지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구축 노력은 아직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동남아나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중국 국가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어서, 국제 비교에서도 비교 대상 5개국 중 대부분 1위나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동남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개국 국민들의 중국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어느 한 국가도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중국 이미지를 미국, 일본의 국가 이미지와 비교한 결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 중국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미국의 국가 이미지가 중국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王正緒·楊穎 2009). 이는 중국 소프트파워 건설 노력의 핵심 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국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였다.

국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영향력과 국가 이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건설 노력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물이다(이내영/정한울 2007, 22-23). 중국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으로 볼 때, ‘중국위협론’은 거의 소멸되었고, ‘중국기회론’이 개발도상국이나 저발전 국가들에서 주된 인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중국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중국책임론’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국제사회 지역별로 비교적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또 최근에 ‘3.14’ 티베트 사건이나 서구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 등으로 비교적 커다란 타격을 입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국가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 강대국이나 국제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이 소프트파워 운용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표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 소프트파워의 목표 평화발전의 의지가 국제사회의 동의와 인정을 얻어서, 반(反)중국 여론을 소멸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 하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중국 소프트파워 건설 노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중국 또한 자국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 소프트파워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지속시키고, 동시에 ‘중국책임론’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 및 제반 사회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국제사회, 특히 서구 국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김예경(2008). “중국·동남아 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 현대국제관계』. 서울 : 오름.
- 이내영·정한울(2007). “국제여론을 통해 본 중국위협론의 평가와 전망,” 『中蘇研究』 통권 114호, 여름.
- 이민자(2008). “2008년 티베트인 시위를 통해 본 중국의 티베트문제.” 『현대중국연구』 제 11집 1호.
- 이영학(2009). “중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 성과 및 한계: 제2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東西研究』 제21권 1호.
- 정재호(2006). “강대국화의 조건과 중국의 부상.” 정재호.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 서울 : 도서출판 길.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 China: Closer partners, growing responsibilities.” October 24, 2006.
- Han, Sukhee & Cheong, Ho & Stek, Pieter(2009). “Public Diplomacy between China

- and the World: The 2008 Beijing Olympic Torch Relay, A Test Case.” 『東西研究』 제21권, 제1호.
- Kurlantzick, Joshua(2007).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S. Jr.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Y.: Public Affairs.
- Roy, Denny(1996). “The ‘China Threat’ Issue: Major Arguments,” *Asian Survey*. Vol. 36. No. 8. August.
- Wang, Hongying and Lu, Yeh chung(2008). “The Conception of Soft Power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Taiwa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7(56). August.
- Zoellick, Robert B.. “W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National Committee on U.S. 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 陳顯泗(2006). “論中國在東南亞的軟實力.” 『東南亞研究』 第6期.
- 陳玉剛(2007). “試論全球化背景下中國軟實力的構建.” 『國際觀察』 第2期.
- 龔鐵鷹(2008). 『軟權力的系統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郭樹勇(2008). “論西方對華軟遏制戰略及其對策思考.”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 第12期.
- 金駿遠(Avery Goldstein, 2008). 『中國大戰略與國際安全』(王軍 譯).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李正男(2007). “中國崛起: 對周邊國家是威脅還是機遇?” 『現代國際關係』 第12期.
- 劉健平(2008). “西藏問題視野中的西方與中國.” 『中國圖書評論』 第7期.
- 劉鳴(2008). “中國國際責任論評析.”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 第1期.
- 呂曉莉(2009). “中國責任論語境下負責任大國外交理念淺析.” 『當代世界與社會主義』 第4期.
- 門洪華(2007). 『中國: 軟實力方略』.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龐中英(2008). “軟力量變革: 論中國的軟力量發展戰略.” 郭樹勇 主編. 『戰略與探索』.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蘇長和(2007). “中國的軟權力: 以國際制度與中國的關係為例.” 『國際觀察』 第2期.
- 王正緒·楊穎(2009). “中國在東南亞民衆心目中的形象: 基於跨國問卷調查的分析.” 『現代國際關係』 第5期.
- 俞新天(2008). 『國際體系中的中國角色』.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張錫鎮(2001). “東亞地區合作進程與有關各方的態度和立場.” 『東南亞研究』 第5期.
- 張幼文·黃仁偉(2009). 『2009中國國際地位報告』. 北京: 人民出版社.
- 趙志(2009). “對3.14事件以來西藏問題的回顧與反思.” 『陰山學刊』 4月.
- 鄭永年·張馳(2007). “國際政治中的軟力量以及對中國軟力量的觀察.” 『世界經濟與政治』 第7期.
- 『연합뉴스』. 2009년 10월 29일. 2009년 12월 16일. 2010년 7월 6일.

- 『國際在線』. 2009年11月19日.
- 『環球時報』. 2009年3月6日.
- 『新華網』. 2009年3月3日.
- “Beijing in 45b yuan global media drive.”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14, 2009.
- 何振華. “西藏問題不是人權問題.”『人民日報』. 2008年4月30日.
- “胡錦濤主席會見澳大利亞總理陸克文.”『新華網』. 2008年4月12日.
- “國務院設立食品安全委員會 李克強出任主任.”『人民日報』. 2010年2月10日.
- “外交部就美國擴大對中國出口爛製品限制等答問.”『中國新聞網』. 2008年11月18日.
- 袁鵬. “從中國威脅論到中國責任論.”『東方早報』2005年12月22日.
-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07年10月15日),”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_10/15/content_688... (2007년 10월 25일 검색).
- World Public Opinion. ORG(2005). “22 Nation Poll Shows China Viewed Positively by Most Countries.”http://worldpublicopinion.org/pipa/articles/views_on_countriesregions_bt/116.php?lb=btvoc&pnt=116&nid=&id=. (2009년 5월 1일 검색).
- BBC World Service Poll(2007). “Israel and Iran Share Most Negative Ratings In Global Poll.”http://www.worldpublicopinion.org/pipa/pdf/mar07/BBC_VIEWS_Countries_Mar07_pr.pdf. (2009년 5월 1일 검색).
- BBC World Service Poll(2009). “Views of China and Russia Decline in Global Poll.”
http://www.worldpublicopinion.org/pipa/pdf/feb09/BBCVals_Feb09_rpt.pdf. (2009년 5월 1일 검색).
- BBC World Service Poll(2010). “Global Views of United States Improve While Other Countries Decline.”http://www.worldpublicopinion.org/pipa/pipa/pdf/apr10/BBCViews_Apr10_rpt.pdf. (2010년 4월 25일 검색).
- Pew Research Center(2005). “U.S. Image Up Slightly, but Still Negative.”
<http://pewglobal.org/reports/display.php?ReportID=247>. (2009년 5월 1일 검색).
- Pew Research Center(2006). “America’s Image Slips, but Allies Share U.S. Concerns over Iran, Hamas.” <http://pewglobal.org/reports/display.php?ReportID=252>. (2009년 5월 1일 검색).
- Pew Research Center(2007). “Global Unease with Major World Powers.”
<http://pewglobal.org/reports/display.php?ReportID=256>. (2009년 5월 1일 검색).
- Pew Research Center(2008). “Global Economic Gloom China and India Notable Exceptions.” <http://pewglobal.org/reports/display.php?ReportID=260>. (2009년 5월 1일 검색).
- Pew Research Center(2009). “Confidence in Obama Lifts U.S. Image around the

World.” <http://pewglobal.org/reports/display.php?ReportID=264>. (2009년 5월 1일 검색).

Pew Research Center(2010). “Obama More Popular Abroad Than at Home, Global Image of U.S. Continues to Benefit.” http://pewglobal.org/files/pdf/Pew_Global_Attitudes_Spring_2010_Report.pdf. (2010년 6월 20일 검색).

<Abstract>

The evaluation and implication on Chinese Soft Power

- focusing on the result of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poll -

Lee, Young Hak*

This article presents that whether the strategic external goals that China is making an effort to achieve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consistent with its actual awareness, to evaluate Chinese Soft Power in an analytic manner. Considering that strategic external goals of Chinese Soft Power are to eliminate public opinion of anti-Chinese like 'China threat theory' and to build up the positive national brand image as a 'responsible pow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article utilizes the public opinion poll to measure on how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aware of Chinese influence and the national image.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poll on Chinese influence showed that 'China threat theory' has been almost disappeared and instead 'China opportunity theory' has been widely spread ou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At the same time, however, 'China responsibility theory' is coming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 and around USA and Europe, which demands more responsibilities from China.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on Chinese national image, the poll comparatively showed the big differences from the geographic perspective. Even though the 3.14 Tibet Riots and the negative report of western media made a huge impact, Chinese national image is being built on in a positive way as a whole. But it can be assured that there still remain many difference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major powerful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sidering that the awaren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Chinese influence and the national image, known through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poll, is the most immediate results of China's efforts to establish Chinese Soft Power, though gained achievements, there is still long way to go further. Therefore, I contend that China consistently focuses on economic development going forward, which is the core resources of Chinese Soft Power and at the same time, effectively manages the demand on 'China Responsibility Theory', political reformation and the other social issues, and especially reinforces the communication with western nations.

■ 논문접수일 : 2010년 7월 19일, 논문심사일 : 2010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5일

* Ph.D Studen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